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가소득 ↑

무주군, 가공시설 공정과정 개선 가공제품 생산 두 배 이상 늘어

무주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시설 공정과정을 개선해 가공제품 생산량이 크게 늘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준공하고 수확철을 맞아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을 소유한 농업인들과 협조해 사과즙, 블루베리즙 등 가공제품을 생산해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처럼 반자동화 시설로 개선되면서 사과즙의 경우 1일 원물처리량이 350kg에서 900kg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품목 37% 원물처리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아로니아, 블루베리 포함 사과, 홍로 등 본격 농산물 수확과 사과즙, 블루베리즙, 사과 아로니아즙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잰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사과아로니아 등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기타 가공품으로는 아로니아 분말, 딸기 분말을 생산하며 열풍건조 방식으로 건 표고버섯도 가공한다.

무주군청 농업지원과 신상범 과장은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을 공정개선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생산(잰 시설보장 이동식탱크)

시설 보강을 통해 반자동화 시설로 개선하면서 품질향상과 생산능력 향상으로 코로나19 비대면 판매처의 신뢰도 상승에 따른 추가 생산이 가능하게 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설비 자동화시설을 강화해 인건비와 안전사고를 줄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가동에 들어 갔으며, 농산물 세척, 착즙, 살균, 건조, 분쇄, 포장할 수 있는 설비 70여종을 갖추고 있다.

한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역량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무원 권익보호 기반 마련

전국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 조례 제정 무주군의회에 감사패 전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이하 무주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무주군의회를 방문,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는 무주군의회가 제288회 정례회를 통해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 이 자리에는 박찬주 의장을 비롯한 조례를 상정한 유송열 의원 등 무주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무주군 공무원노조 백원준 지부장과 임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 공무원노조 백원준 지부장은 감사패와 함께 "공무원들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신 의원님과 무주군의회에 6백여 공직자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한다"며 "무주군 공직자 모두는 이를 토대로 지역과 군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 /무주=전문선 기자

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해당 직원(공무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의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개방형 상담시설,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충해 응대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유송열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원업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과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센트럴·한도병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업무협약

진안군은 29일 센트럴병원·한도병원(이사장 상대영)과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MOU를 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건강 검진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군에 지난 26일 오후 5시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와 상대영 센트럴병원(경기도 시흥시)·한도병원(경기도 안산시) 이사장을 비롯해 재경 진안군민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내년부터 3년간 관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 1년에 60명씩 총 180여명에게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 성사의 중심에는 진안군

동향면이 고향이 상대영 이사장이 있다. 성 이사장은 2009년부터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한도병원 이사장직까지 맡고 있는 의료 경영계의 통이다.

상대영 이사장은 "고향의 군민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협약식 소감을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협약식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협약식을 통해 관내 의료 취약계층들의 의료 복지가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비비큐·메가커피와 동반 상생 업무협약

장수군은 국내 차인 브랜드 1위 기업인 제너시스 비비큐 그룹(회장 윤홍근), 가성비 커피의 선두주자 메가커피(대표이사 김대영)와 지역 농특산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수군의 신선하고 품질 높은 농특산물을 활용해 프리미엄 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반 상생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비비큐는 대표메뉴

인 양념치킨 특화소스에 장수에서 생산한 레드푸드(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를 사용하고, 사과잼이 가미된 사이다 메뉴, 치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료 등 신메뉴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메가커피는 내년 여름과 가을 신메뉴 출시를 목표로 주요 소비 타깃인 15세~29세 세대를 취향을 반영한 사과칩과 티백 등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음료메뉴를 개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차매안심마을 현판식 갖고 프로그램 본격 운영

무주군은 29일 올해 차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교육 및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차매안심마을인 무주읍 내동마을과 부남면 대소마을 각 마을 경로당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마을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로 선정된 이들 마을에 대한 차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차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마을들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축하를 드린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의 차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마을을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산실이 돼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5회 진안군 사회복지 한마음대회 개최

진안군은 29일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진안문화회관에서 제15회 진안군 사회복지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을 비롯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본래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 개최됐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1월에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복지윤리선언 낭독, 숲은 일꾼표창 등 기념식만 간소하게 진행했다.

숲은 일꾼으로는 김화영(부귀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주무관이 진안군수상, 쌍봉사 민복의 소리 봉사단(사회공헌 기부은행)이 진안군 의장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장상에는 유순화(진안노인전문요양원),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는 전숙이(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용담면 지회장), 박주홍(정천우체국장), 조아란(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직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는 유선숙 진안군가족센터 사무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지역맞춤 특색개발' 최선

무주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소통회의를 열고 '지역맞춤 특색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노후 공간의 재가치를 창출해 지역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 내야한다"면서 "그 기반이 바로 지역맞춤 특색개발로, 그간의 추진 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의지, 우리 환경을 비롯한 6개 읍·면, 마을의 특성, 군민요구와 필요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7기 무주군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구축하고 △365일 안전생활 실현, △거주환경 개선,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지역맞춤 특색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도시숲과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유휴 토지를 활용한 산나물·산약초 재배를 지원하는 등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

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범용·하천수위 감시용 CCTV 설치(2018년~총 10대 교체, 4대 신설),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2018년~ CCTV 496대 설치 강력범죄 등 440건의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 읍·면 취약지역 가로 등(2018년~총 417등)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2018년~총 14곳), 전 군민안전보험 지원(2020년~총 4건, 4천만 원 지급)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군은 올해 7월 평생교육원 개원해 운영 중이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복합된 연면적 4,500㎡규모, 사업비 154억 원 투입 예정) 또한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등을 통해 거주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군은 구천정수장을 개량·증설해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진행해 안성면과 부남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

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장기 방치된 건물을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무주읍 반다내리 지일센터 사업비 107억 원)으로 조성, 무주읍 주민복지를 위한 어울림센터 프로젝트(사업비 49억 원)도 추진한다. 올해는 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산도봉정터를 중심으로 1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최대 국비 30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협약 공모에도 선정(농림축산식품부)됐다.

황인홍 군수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전은 민선 7기 무주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정방침으로 이는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을 통한 무주형 뉴딜이 무주를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